

황선홍 “책임은 제게”...A대표팀 루머에 “비겁한 사람 아냐”

U-23 남자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현 연령대 대표팀 운영 구조·시스템 바뀌어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렸던 황선홍 감독이 빈손으로 쓸쓸하게 귀국했다.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본진이 27일 정오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 선수단의 표정은 어두웠다.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 이번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3위 안에 들어야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펼쳐 한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3전 전승, B조 1위로 통과해 8강에 올랐으나, 신태음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경기에서 이영준(김천)의 퇴장 악재 속에 연장까지 120분을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플레이오프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한 건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1988 서울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온 세계 최다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은 9회에서 멈췄다.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황 감독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수들은 앞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

해 줬다고 생각한다. 비난보다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현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는 “핑계 같을 수 있겠지만 현 연령대 대표팀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2년여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이면 (상위팀과)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하위팀과) 격차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황 감독은 “반드시 연령대 대표팀이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아시안게임 성격에 따라 감독 수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 올림픽 준비를 하는데 (준비 기간이) 4년이 아니다. 저는 작년 9월(황제우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고, 다시 올해 4월이었다. 이런 구조로는 아시아권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감독은 지난 3월 임시로 A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였다. 당시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감독 겸직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림픽 출전권 확보 실패로 더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그

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말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봤던 인도네시아에 8강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스리백으로 전환을 하고, 그 라운드를 통과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스리백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내려와서 수비만 하자는 건 아니었다. 미드필드에서 압박을 가하자고 했는데 원활하게 안 됐다. 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이고, 제 미스였던 것 같다. 후반에 구조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 모델이 퇴장이나 변수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전에서 이영준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황 감독은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선수 한 명을 결정해도 밤새 논의해서 결정한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영준은 조별리그 2차전이 끝나고 스포츠 헤르니아(스포츠 탈장) 증상이 있었다. 무리했다. K리그에서 거의 뛰지 못하는데 여기서 60분 이상을 뛰면 또 다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전을 쉬게 한 것이다. 이 선수는 65분까지가 맥스다. 전반이나 후반이나를 두고 고민했고, 우리는 후반을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인도네시아와 8강 후반 추가시간에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그 퇴장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왜 경고를 받고 퇴장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정도



황선홍 U-23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는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석연찮은 판정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 감독이 원했던 해외와 삼총사 배준호(스토크시티), 양현준(셀틱), 김지수(브렌트포드)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합류하지 못한 것도 빼어뜨린다.

이에 대해서 “세 선수는 직접 구단을 방문해서 차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 팀들이 4월 시즌 막판에 순위 싸움이 있으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차출을 거부한 상황이다”며 “김동진과 최강민 등은 차출이 거부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결정을 했던 선수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 수비를 안 뽑고 왜 김동진을 뽑았느냐고 하는데 설명하자면 지금 국내 중앙수비는 경기에 뛰는 선수가 없다. 그렇

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를 중앙으로 돌리고, 미드필더를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보탰다.

황 감독은 현재 공식인 A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군 중 하나다. 하지만 올림픽 본선 좌절로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황 감독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많이 지쳤다. 조금 쉬고 싶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했다.

카타르 현지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A대표팀 사령탑 관련 면담을 가졌다는 소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음을 생각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건 분명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비왕’ 김하성, 홈팬들 앞에서 골드글러브 트로피 받아

지난해 NL 유틸리티 부문 수상 애틀랜틱 선수 2번째...내야수 최초

지난해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뒤늦게 트로피를 받았다.

김하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골드글러브 전달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날 김하성의 팀 동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유익수 부문 골드글러브와 플레티넴 글러브를 받았다.

골드글러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볼링스사는 시즌 종료 후 수상자들의 소속팀 홈 경기장에서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1957년 제정된 골드글러브는 수비력만으로 포지션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각 리그 10명만이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2022년부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부문이 신설됐고, 지난해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인 김하성이 무키 베츠(LA 다저스)와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제치고



2023 골드글러브 트로피를 받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김하성. (사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SNS 캡처)

이 부문을 수상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주 포지션인 2루수(106경기 856%이닝)뿐 아니라 3루수(32경기 253%이닝)와 유격수(20경기 153%이닝)로도 맹활약하며 다재다능함을 과시했다.

뉴시스

‘3번 출격’ 이정후, 피츠버그전 4타수 1안타...2경기 연속 안타

6회 내야 안타 기록...시즌 타율 0.27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가 빠른 발로 안타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삼진을 작성했다.

전날 2경기 침묵을 깨고 안타를 재가동한 이정후는 이날 안타 1개를 추가해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0으로 소폭 떨어졌다.

1회 2사에서 첫 타석에 선 이정후는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피츠버그 좌완 선발 마틴 페레즈의 체인지업에 헛스윙하며 삼진을 당했다.

4회 1사 1루에서는 페레즈의 초구 싱커를 받아쳤지만, 중견수 잭 스윈스키에게 잡혔다.

이정후는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페레즈의 싱커에 방망이를 휘둘러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유격수 알리카 윌리엄스가 타구를 잡은 뒤 곧바로 1루로 송구했으나 이정후가 먼저 베이스를 밟았다.

하지만 후속 타자 맷 채프먼이 헛스윙 삼진으로 몰리나며 추가 진루엔 실패했다.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등장해 좌완 블렌 조시



플레이어의 체인지업을 걷어 올렸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몰리나다.

샌프란시스코(13승 15패)는 연장 10회 홈런 2방을 얻어맞고 피츠버그(14승 14패)에 3-4로 졌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LA 다저스(18승 11패)와 승차가 4.5경기로 벌어졌다.

뉴시스

이정민, KLPGA 챔피언십 제패...메이저 대회 첫 우승

KLPGA 투어 통산 11번째 우승 전예성,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

이정민(한화큐셀)이 마침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정민은 28일 경기 양주 레이쿠우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토프앤서 제4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19언더파 269타를 작성한 2위 전예성(안강건설)을 4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11번째 우승

을 달성했다.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두 차례 ‘톱10’에 올랐던 이정민은 이번 시즌 6번째 대회에서 첫 승을 수확했다. 2022년 12월 PLK퍼시픽링크코리아 챔피언십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통산 2승을 노린 전예성은 이날 버디만 12개를 잡고 12언더파를 몰아치며 맹활약했으나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KLPGA 투어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경기 후 전예성은 “12언더파를 기록한 것이 현실이 돼 알뜰했는데 기쁘다. 오늘은 정말 치는 족족 다 들어갔다. 어제 퍼트가 잘 안 돼서 연습했더니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언더파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전예성은 “자신감이 더 붙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예성은 KLPGA 역대 메이저 대회 최소 스트로크 기록(18홀)을 수립하고도 정상에 등극하지 못했다. 그는 “(이)정민 언니의 페이스가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스코어를 줄이고 순위를 끌어 올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손흥민, EPL 올해의 팀 20명에 선정...토틸넘 유일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팀’ 20명에 이름을 올렸다.

EPL 사무국은 27일(한국시간) 일렉트로닉아츠(EA) 스포츠의 FC24와 함께 EPL 올해의 후보 20명을 발표했는데 손흥민(94점)이 8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포함됐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 9도움으로 활약 중이다. 도움을 1개만 더 추가하면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로 10골-10도움을 달성하게 된다.

20명 중 토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득점부문 선두 엘리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비롯해 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다이크(이상 리버풀), 부카요 사카, 벤 화이트(이상 아스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홀란과 반다이크가 97점으로 가장 높았다.